제 136 호
2020-17호
(2020.09.10)

KLSI

ISSUE PAPER

www.klsi.org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lsi.org/

<요 약>

○ 통계청이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27만 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27만 명이 아닌 60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8월에 11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음에도 취업자 회복세가 8월까지 계속된 것은, 통계청 8월 조사가 8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임. 9월 조사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초기에는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음. 임금노동자와 단순노무직, 사회서비스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와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계속 악화되거나 악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취업자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3월에 7,000만 시간(−6.4%), 4월에 1억4,100만 시간(−12.9%), 5월에 6,100만 시간(−5.6%), 6~7월에 4,500만 시간(−4.1%), 8월에 6,700만 시간(−6.1%) 감소했음.

–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3월에 175만 개, 4월에 353만 개, 5월에 153만 개, 6~7월에 111~112만 개, 8월에 16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 총노동시간 감소를 요인분해 하면, 3월은 일시휴직 증가, 4월과 8월은 노동시간(조업) 단축, 5~7월은 무직자 증가가 가장 주된 원인임.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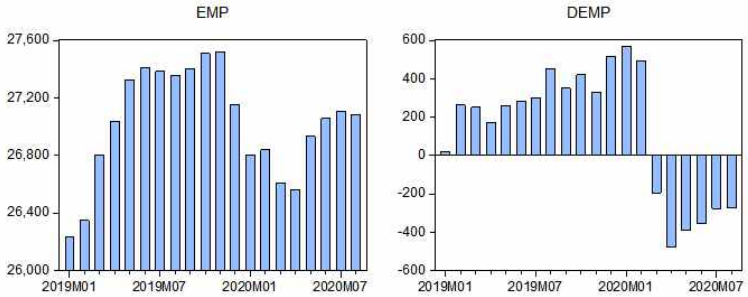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코로나 위기 여섯 달째 감소한 취업자는 27만 명이 아닌 60만 명

○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 '전월(前月) 대비'보다 '전년 동월(前年同月) 대비' 지표를 사용함. 이는 계절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임.

– 예컨대 2020년 3월 취업자는 2,66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감소했고, 8월 취업자는 2,70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명 감소했음. 대다수 언론은 기사 제목으로 '취업자 27만 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함(<그림1> 참조).

<그림1>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8, 원계열, 단위: 천명)



○ 고용지표는 계절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그밖에 경기변동, 불규칙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됨. 요즈음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일 때는 '전년 동월 대비'보다 '전월 대비' 또는 '2월 대비' 자료가 적합함.

–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020년 2월 15일 28명, 3월 15일 8,162명, 4월 15일 1만 59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0명, 75명, 225명임. 따라서 2월까지는 코로나 위기 전(前), 3월부터는 코로나 위기 중(中)으로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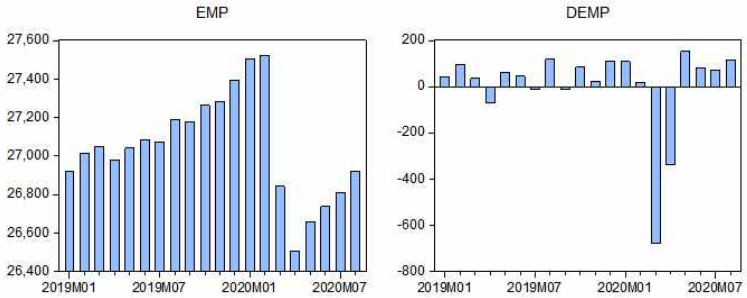
○ 통계청은 계절 요인을 통제한 계절조정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때는 ①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② 2월 대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용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필요함.

– 2020년 2월 계절조정 취업자는 2,752만 명, 3월 2,684만 명, 4월 2,650만 명, 5월 2,666만 명, 6월 2,674만 명, 7월 2,681만 명, 8월 2,692만 명임.

–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 3월 대비 4월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했음. 5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4월 대비 5월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했고, 5월 대비 6월 취업자는 8만 명 증가했음. 6월 대비 7월 취업자는 7만 명 증가했고, 7월 대비 8월 취업자는 11만 명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 전(前)인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 4월 취업자는 102만 명, 5월 취업자는 87만 명, 6월 취업자는 79만 명, 7월 취업자는 71만 명, 8월 취업자는 60만 명 감소했음(<그림2>와 <부표1> 참조).

<그림2>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8월에 11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 효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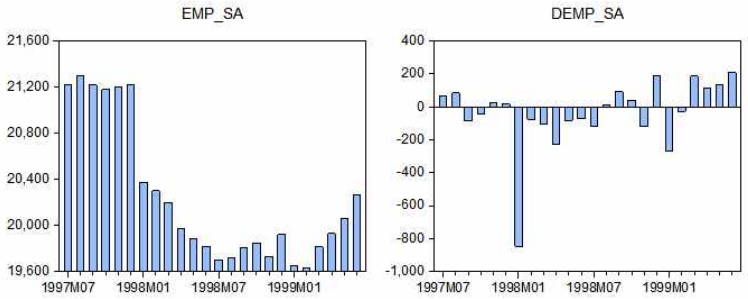
–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음에도 취업자 회복세가 8월까지 계속된 것은,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8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임. 9월 조사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코로나 위기 여섯 달째 취업자 감소(-60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동안 취업자 감소(-25만 명) 폭은 크게 넘어서지만, 외환위기 첫 여섯 달 취업자 감소(-141만 명) 폭에는 못 미침.

○ 외환위기 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997년 12월 2,122만 명에서 1999년 2월 1,963만 명까지 14개월 동안 160만 명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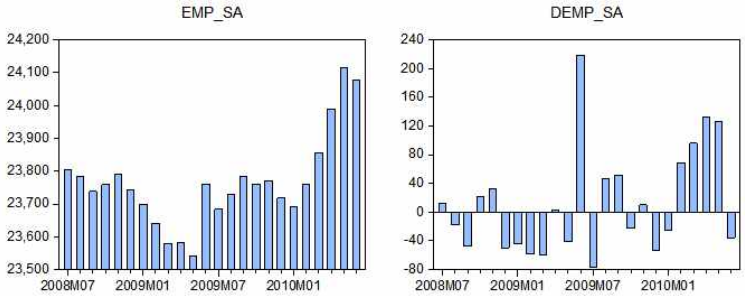
- 취업자 수가 급감한 1998년 1월에는 2,038만 명으로 한 달 사이 85만 명 감소했고, 2월에는 2,030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음. 3월에는 2,020만 명으로 다시 10만 명 감소했고, 4월에는 1,997만 명으로 23만 명 감소했음. 5월에는 1,989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고, 6월에는 1,982만 명으로 7만 명 감소했음. 첫 여섯 달 동안 감소한 취업자 수가 141만 명임(<그림3>과 <부표2> 참조).

<그림3> 외환위기 때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1997.7-1999.6, 계절조정, 단위: 천명)



○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2,379만 명에서 2009년 5월 2,354만 명까지 6개월 동안 취업자가 25만 명 감소했음(<그림4>와 <부표2> 참조).

<그림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08.7-2010.6, 계절조정,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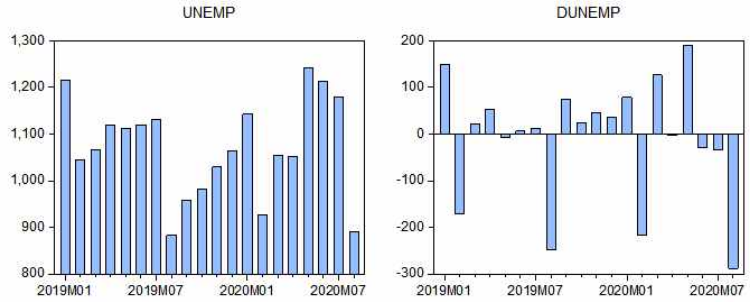


3. 코로나 위기 여섯 달째 실업자는 4만 명 감소했고 무직자는 72만 명 증가했음.

○ 2020년 2월 계절조정 실업자는 93만 명, 3월과 4월 실업자는 105만 명, 5월 실업자는 124만 명, 6월 실업자는 121만 명, 7월 실업자는 118만 명, 8월 실업자는 89만 명임.

- 2월 대비 3~4월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고, 5월 실업자는 31만 명, 6월 실업자는 28만 명, 7월 실업자는 25만 명 증가했음. 그러나 2월 대비 8월 실업자는 4만 명 감소했음(<그림5>와 <부표1> 참조).
- 취업자는 60만 명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4만 명 감소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실업자 추이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 추이를 살펴보는 게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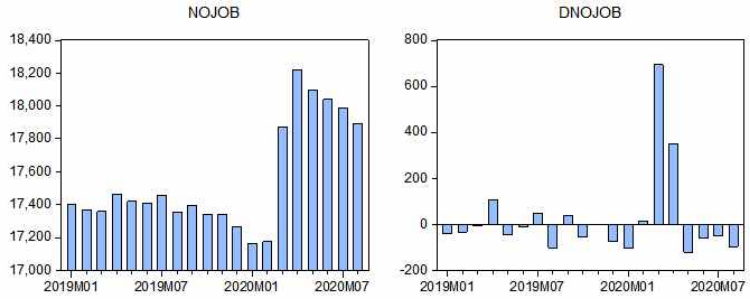
<그림5> 연도별 월별 실업자 수와 전월 대비 실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 2020년 2월 무직자는 1,718만 명, 3월 1,787만 명, 4월 1,822만 명, 5월 1,810만 명, 6월 1,804만 명, 7월 1,799만 명, 8월 1,789만 명임.

- 코로나 위기 전(前)인 2월 대비 3월 무직자는 69만 명 증가했고, 4월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음. 5월 무직자는 92만 명, 6월 무직자는 86만 명, 7월 무직자는 81만 명, 8월 무직자는 72만 명 증가했음(<그림6>과 <부표1> 참조).

<그림6> 연도별 월별 무직자 수와 전월 대비 무직자 증감 추이
(2019.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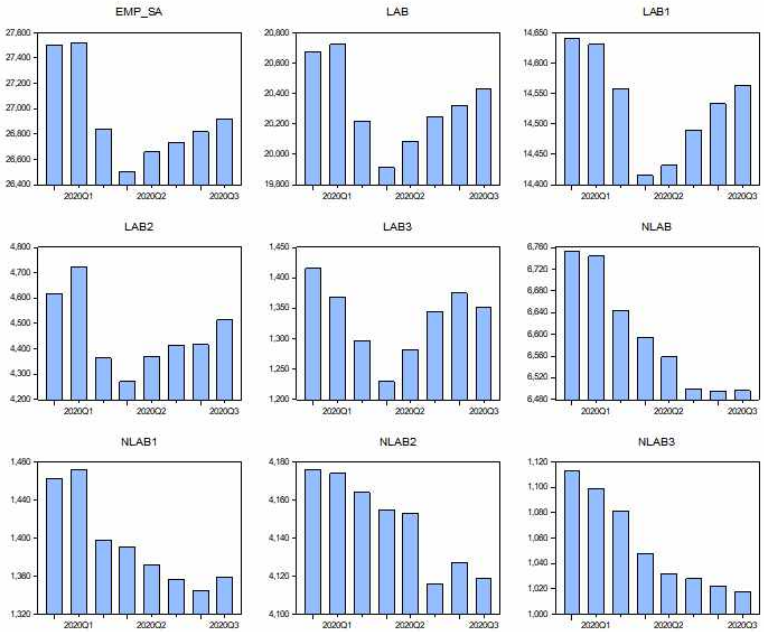
4.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초기에는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임금노동자와 단순노무직, 사회서비스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계속 악화되거나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39만 명)이 남성(-21만 명)보다 많음. 연령별로는 30대(-23만 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0만 명), 40대(-17만 명), 15-29세(-11만 명), 50대(-8만 명) 순으로, 모든 연령층이 타격을 받음.

○ 종사상 지위별로 노동자(-29만 명)와 비임금근로자(-25만 명) 모두 감소했음. 임시직(-21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고용주(-11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8만 명), 상용직(-7만 명), 자영업자(-6만 명), 일용직(-2만 명) 순으로 감소했음.

- 임금노동자는 3~4월에 계속 감소하다가 5~8월에 회복세로 돌아선데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6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7~8월에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즉 4월을 저점으로 5~8월에 상용직은 15만 명, 임시직은 24만 명, 일용직은 12만 명 증가한데 비해, 고용주는 3만 명, 자영업자는 4만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명 감소했음(<그림7>과 <부표1> 참조).

<그림7> 월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2020.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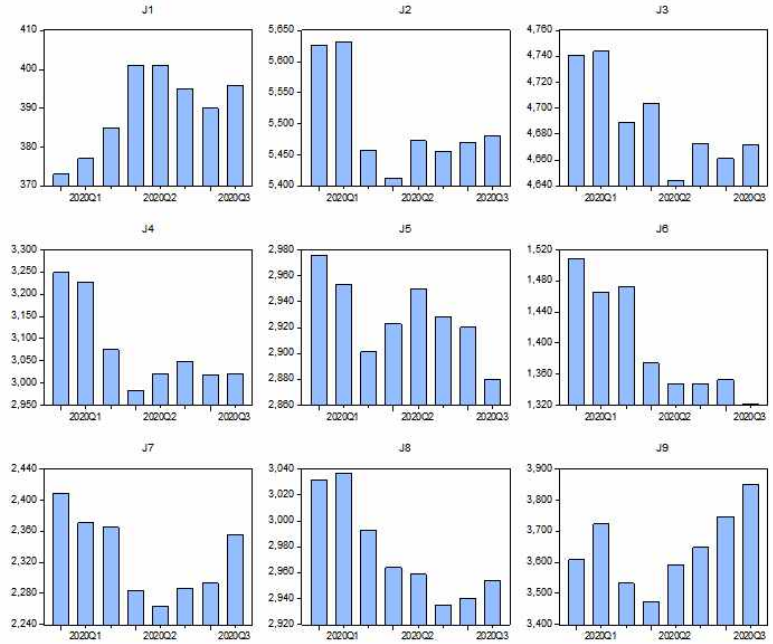


(EMP 취업자 LAB 노동자 LAB1 상용직 LAB2 임시직 LAB3 일용직
NLAB 비임금근로자 NLAB1 고용주 NLAB2 자영업자 NLAB3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1만 명), 전문가(-15만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4만 명),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8만 명)가 가장 많이 감소했음. 취업자가 증가한 직업은 단순노무직(13만 명)과 관리자(2만 명)임.

- 코로나 위기 초기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아 4월에는 2월보다 25만 명 감소했던 단순노무직은, 5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8월에는 2월보다 13만 명 늘어났음(<그림8>과 <부표1> 참조).

<그림8> 월별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2020.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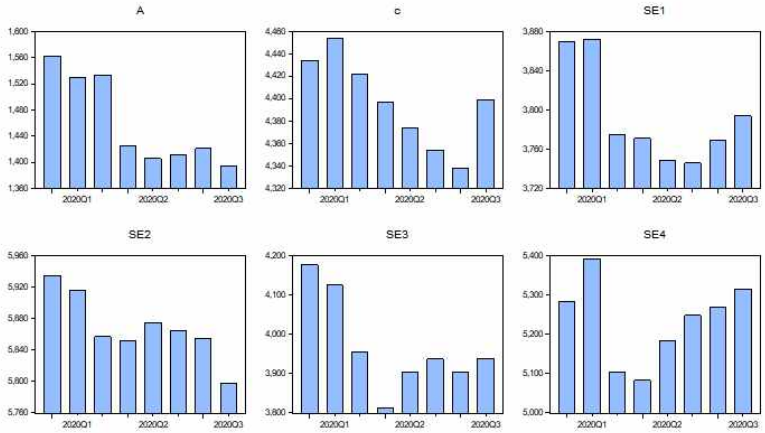


(J1 관리자 J2 전문가 J3 사무직 J4 서비스직 J5 판매직 J6 농림어업숙련직
J7 기능직 J8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 J9 단순노무직)

○ 산업별로는 개인서비스업(-19만 명), 농림어업(-14만 명), 유통서비스업(-12만 명), 사회서비스업(-8만 명), 생산자서비스업(-8만 명), 제조업(-6만 명) 순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음.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숙박음식점업(-14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음.

- 코로나 위기 초기(3~4월)에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은 사회서비스업(-31만 명)과 개인서비스업(-31만 명)임. 사회서비스업은 8월(-8만 명)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개인서비스업은 8월(-19만 명)에도 회복세가 더딤(<그림9>와 <부표1> 참조).

<그림9> 월별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2020.1-2020.8, 계절조정, 단위: 천명)



(A 농림어업 C 제조업 SE1 생산자서비스업
SE2 유통서비스업 SE3 개인서비스업 SE4 사회서비스업)

○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초기에는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임금노동자와 단순노무직, 사회서비스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계속 악화되거나 악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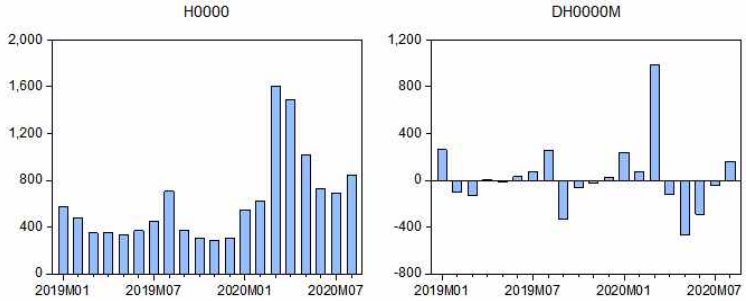
5. 세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던 일시휴직이 6~8월에는 69~85만 명으로 감소

○ 통계청은 주요 고용지표와 성별·연령·종사상지위·산업·직업별 취업자만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고, 일시휴직 등은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일시휴직자를 구한 뒤 전월 또는 2월 대비 증감을 살펴봄.

○ 취업자 중 일시휴직은 2020년 2월 62만 명에서 3월 161만 명으로 99만 명 증가했음. 4월에는 149만 명으로 한 달 사이 12만 명 감소했고, 5월에는 102만 명으로 다시 47만 명 감소했음. 6월에는 73만 명, 7월에는 69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8월에는 85만 명으로 한 달 사이 16만 명 증가했음. 2월 대비 8월 일시휴직은 23만 명 증가했음(<그림10> 참조).

- 참고로 1982년 7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일시휴직 최대치는 2014년 8월 88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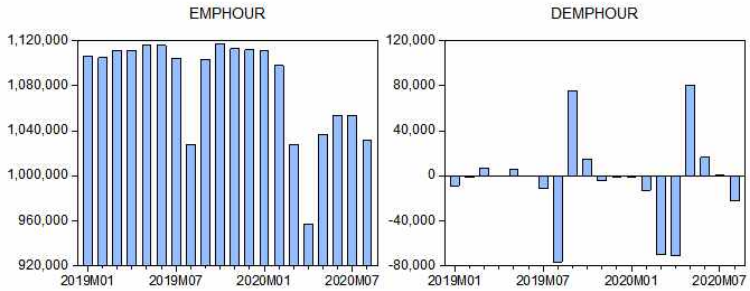
<그림10> 연도별 월별 일시휴직 수와 전월 대비 일시휴직 증감 추이
(2019.1-2020.8, 원계열, 단위: 천명)



6. 코로나 위기 여섯 달째 전체 취업자의 총노동시간은 6,700만 시간(-6.1%) 감소했고, 주40시간 일자리 168만 개가 사라졌음.

○ 취업자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이 증가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주당 총노동시간(계절조정 취업자수×노동시간)은 2020년 2월 10억 9,800만 시간에서 3월에는 10억 2,800만 시간으로 7,000만 시간 감소했고, 4월에는 9억 5,700만 시간으로 다시 7,100만 시간 감소했음. 5월에는 10억 3,700만 시간으로 한 달 사이 8,000만 시간 증가했고, 6월에는 10억 5,300만 시간. 7월에는 10억 5,400만 시간으로 1,600만 시간 증가했음. 그러나 8월에는 10억 3,100만 시간으로 다시 2,300만 시간 감소했음(<그림11>과 <표1> 참조).

<그림11> 연도별 월별 총노동시간과 전월 대비 총노동시간 증감 추이
(2019.1-2020.8, 계절조정, 단위: 주당 천시간)



○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월 대비 3월에 감소한 주당 총노동시간은 7,000만 시간(-6.4%)이고, 4월에 감소한 총노동시간은 1억 4,100만 시간(-12.9%)임. 5월에는 6,100만 시간(-5.6%), 6월과 7월에는 4,500만 시간(-4.1%), 8월에는 6,700만 시간(-6.1%) 감소했음.

-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3월에는 175만개, 4월에는 353만개, 5월에는 153만개, 6월에는 112만개, 7월에는 111만개, 8월에는 16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임(<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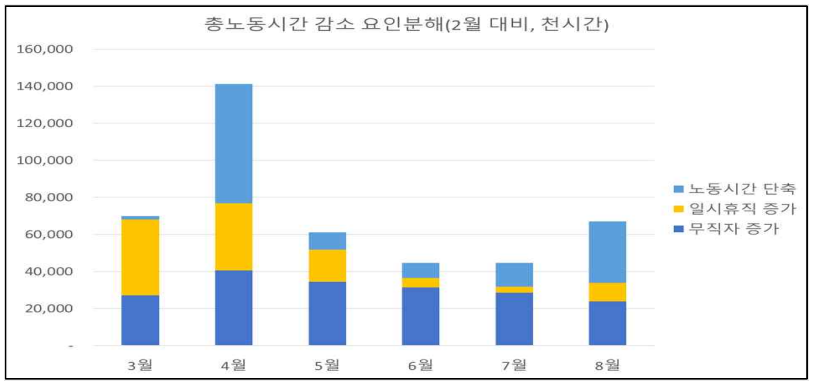
<표1> 월별 총노동시간과 증감(율) 추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수(계절조정, 천명)	27,522	26,842	26,504	26,657	26,736	26,808	26,922
주당 노동시간(시간)	39.9	38.3	36.1	38.9	39.4	39.3	38.3
총노동시간(백만시간)	1,098	1,028	957	1,037	1,053	1,054	1,031
총노동시간 증감(2월 대비, 백만시간)		-70	-141	-61	-45	-45	-67
총노동시간 증가율(2월 대비, %)		-6.4	-12.9	-5.6	-4.1	-4.1	-6.1
주40시간 환산 일자리수 증감(천명)		-1,752	-3,533	-1,529	-1,118	-1,114	-1,675

7. 총노동시간 감소를 요인분해 하면, 3월은 일시휴직 증가, 4월과 8월은 노동시간(조업) 단축, 5~7월은 무직자 증가가 가장 주된 원인임.

○ 총노동시간 감소를 요인분해[1] 하면, 코로나 위기 직후인 3월은 일시휴직 증가가 58.4%, 5~7월은 무직자 증가가 56.4~70.1%로 가장 많고, 4월과 8월은 노동시간 단축이 45.6~49.6%로 가장 많음(<그림11>과 <표2>).[2]

<그림11> 총노동시간 감소 요인분해



<표2> 총노동시간 감소 요인분해(2월 대비, 단위: 천시간, %)

	총노동시간 감소(천시간)						비중(%)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노동시간감소	70,079	141,333	61,170	44,729	44,573	67,015	100	100	100	100	100	100
무직자 증가	27,132	40,618	34,514	31,361	28,489	23,940	38.7	28.7	56.4	70.1	63.9	35.7
(비경활인구)	22,174	35,798	22,748	20,968	19,636	25,145	31.6	25.3	37.2	46.9	44.1	37.5
(실업자)	4,958	4,820	11,766	10,393	8,852	-1,205	7.1	3.4	19.2	23.2	19.9	-1.8
일시휴직 증가	40,913	36,252	17,168	5,241	3,383	9,837	58.4	25.6	28.1	11.7	7.6	14.7
노동시간 단축	1,956	64,394	9,456	8,117	12,696	33,219	2.8	45.6	15.5	18.1	28.5	49.6

1) 요인분해 방법은, 계절조정 취업자수 자료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ILO(2020.6.30.)의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ifth edition"과 동일함.
2) 4월은 국회의원 총선, 8월은 여름휴가 때문에 노동시간(조업) 단축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됨.

<부표1> 월별 취업자 수 증감(계절조정, 2월 대비, 단위: 천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체	-680	-1018	-865	-786	-714	-600
남성	-243	-401	-353	-310	-298	-210
여성	-437	-617	-513	-475	-416	-390
(15-64세)	-476	-750	-664	-641	-619	-548
15-29세	-157	-209	-154	-155	-170	-112
30-39세	-108	-176	-187	-182	-179	-228
40-49세	-65	-158	-162	-173	-170	-166
50-59세	-116	-192	-166	-154	-143	-80
60세이상	-378	-436	-383	-315	-243	-199
(노동자)	-503	-808	-638	-475	-399	-292
상용	-73	-216	-199	-141	-98	-67
임시	-359	-452	-353	-310	-307	-209
일용	-71	-139	-86	-23	7	-16
(비임금근로자)	-101	-150	-186	-244	-249	-247
고용주	-74	-81	-100	-115	-127	-113
자영업자	-10	-19	-21	-58	-47	-55
무급가족 종사자	-18	-51	-67	-71	-77	-81
1 관리자	8	24	24	18	13	19
2 전문가	-174	-219	-159	-177	-162	-151
3 사무직	-55	-40	-100	-71	-83	-72
4 서비스직	-152	-245	-207	-178	-209	-207
5 판매직	-52	-30	-3	-25	-33	-7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92	-118	-118	-113	-14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6	-87	-107	-84	-78	-16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44	-73	-78	-102	-97	-83
9 단순노무 종사자	-191	-250	-132	-76	23	127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2> 월별 취업자 수 증감(계속, 계절조정, 2월 대비, 단위: 천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산업	-680	-1018	-865	-786	-714	-600
A 농림어업	4	-104	-123	-118	-108	-135
B 광업	2	1	-1	-1	-3	-3
C 제조업	-32	-57	-80	-100	-116	-55
D 전기가스증기공기	-5	-12	-5	-5	-3	-3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	6	6	11	11	11
F 건설업	-10	-78	-61	-48	-12	28
(생산자서비스업)	-97	-101	-124	-126	-103	-78
K 금융보험업	-11	-3	-6	-19	-32	-29
L 부동산업	-16	-23	-28	-36	-40	-38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3	-41	-34	-38	-24	-25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7	-34	-56	-33	-7	14
(유통서비스업)	-59	-65	-41	-51	-61	-119
G 도매소매업	-25	-11	-20	-44	-43	-90
H 운수창고업	-31	-57	-36	-17	-20	-23
J 정보통신업	-3	3	15	10	2	-6
(개인서비스업)	-171	-313	-221	-188	-222	-186
I 숙박음식점업	-107	-196	-149	-150	-172	-140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35	-29	-7	2	-19	-13
S 협회단체수리기타	-25	-82	-66	-41	-37	-42
T 가구내고용활동 등	-4	-6	1	1	6	9
(사회서비스업)	-289	-310	-209	-145	-125	-78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90	-76	-77	-64	-59	-14
P 교육서비스업	-82	-104	-53	-50	-50	-71
Q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117	-131	-82	-34	-17	7
U 국제 및 외국기관	0	1	3	3	1	0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3> 금융위기 때 취업자 감소와 비교(계절조정, 단위: 천명)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위기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1997.07	21,219	69	2008.07	23,803	12	2019.01	26,919	43
1997.08	21,303	84	2008.08	23,785	−18	2019.02	27,015	96
1997.09	21,220	−83	2008.09	23,738	−47	2019.03	27,050	35
1997.10	21,180	−40	2008.10	23,759	21	2019.04	26,979	−71
1997.11	21,204	24	2008.11	23,792	33	2019.05	27,040	61
1997.12	21,221	17	2008.12	23,742	−50	2019.06	27,085	45
1998.01	20,373	−848	2009.01	23,698	−44	2019.07	27,073	−12
1998.02	20,298	−75	2009.02	23,640	−58	2019.08	27,190	117
1998.03	20,196	−102	2009.03	23,580	−60	2019.09	27,177	−13
1998.04	19,970	−226	2009.04	23,583	3	2019.10	27,261	84
1998.05	19,887	−83	2009.05	23,542	−41	2019.11	27,284	23
1998.06	19,815	−72	2009.06	23,761	219	2019.12	27,395	111
1998.07	19,699	−116	2009.07	23,684	−77	2020.01	27,503	108
1998.08	19,714	15	2009.08	23,730	46	2020.02	27,522	19
1998.09	19,807	93	2009.09	23,782	52	2020.03	26,842	−680
1998.10	19,849	42	2009.10	23,760	−22	2020.04	26,504	−338
1998.11	19,729	−120	2009.11	23,770	10	2020.05	26,657	153
1998.12	19,920	191	2009.12	23,717	−53	2020.06	26,736	79
1999.01	19,653	−267	2010.01	23,692	−25	2020.07	26,808	72
1999.02	19,626	−27	2010.02	23,761	69	2020.08	26,922	114
1999.03	19,813	187	2010.03	23,857	96			
1999.04	19,928	115	2010.04	23,989	132			
1999.05	20,060	132	2010.05	24,115	126			
1999.06	20,268	208	2010.06	24,079	−36			
첫2개월		−923	첫2개월		−94	첫2개월		−1,018
첫3개월		−1,025	첫3개월		−152	첫3개월		−865
첫4개월		−1,251	첫4개월		−212	첫4개월		−786
첫5개월		−1,334	첫5개월		−209	첫5개월		−714
첫6개월		−1,406	첫6개월		−250	첫6개월		−600
감소기간	14개월	−1,595	감소기간	6개월	−250	감소기간	2개월	−1,018

자료: 통계청 KOSIS